

「こと(だ)/の(だ)」의 습득 난이도

— 초·중급 레벨을 대상으로 —

최진희*

(e-mail : pumpkin98@hanmail.net)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4. 결과와 고찰 |
| 2. 선행연구의 과제 | 4.1. 「こと·の」의 선택 테스트 결과 |
| 2.1. 「こと(だ)·의(だ)」의 의미에 대한 연구 | 4.2. 「ことだ·의だ」의 한일번역 테스트 결과 |
| 2.2. 일본어 학습자의 「こと(だ)·의(だ)」 사용에 대한 연구 | 5. 나가기 |
| 3. 조사의 개요 | |

키워드 : こと(Koto), の(No), 習得(Aquisition), 初級(Beginner level), 中級(intermediate level)

1. 들어가기

「こと」「の」의 사용이 어려운 것은 「こと」 전용, 「の」 전용, 「の」 보다 「こと」를 선호하는 것, 「こと」 보다 「の」를 선호하는 것, 「こと·の」 둘 다 사용 가능한 것 등 다양한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市川(2005)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가 소개되어 있다.

- (1) 私の趣味は本を読むことです。
- (2) きのう来なかったのは小林さんだ。
- (3) 人間は勉強することが > ? のが必要だ。
- (4) 母が洗濯物をたたむのを > ? ことを手伝う。
- (5) 田中さんが日本へ帰ること·のを知っていますか。

* 백석문화대학교, 조교수, 일본어학

市川(2005:334-338), 밑줄은 저자.

(1)은 「こと」 전용으로 「명사1は~명사2だ/です」 문의 경우 명사2에 명사절이 수식하는 경우에는 「こと」만 사용된다. (2)는 「小林さんはきのう来なかった」 문에서 小林さんを 강조하는 구문으로 나타내는 경우 「~のは~だ」를 사용한 것이다. (3)은 「の」보다 「こと」를 선호하는 것으로 뒤에 「大切だ/必要だ」가 오는 경우 「こと」가 사용되기 쉽다. (3)과 반대로 (4)는 「こと」보다 「の」를 선호하는 것으로 뒤에 「手伝う/待つ」가 올 때 「の」가 사용되기 쉽다. 그리고 (5) 「知る」에서는 「こと·の」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으로 인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경우 「こと·の」의 사용에 있어서 혼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어와 일본어 문말표현의 유사성으로 인해 「ことだ」 「のだ」의 사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게 「の」보다 「こと」를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こと」 전용, 「の」 전용, 「の」보다 「こと」를 선호하는 것(이하, 「의 < 「こと」로 표시), 「こと」보다 「の」를 선호하는 것(이하, 「こと」 < 「의」로 표시)에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こと·の」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그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문말표현 「ことだ」 「のだ」의 사용경향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과제

2.1. 「こと(だ) ·의(だ)」의 의미에 대한 연구

佐治(1993)는 ‘동일 현장성’에 주목하여 「の」에 오는 술어는 사태를 현장에서의 움직임 그대로 간주하고, 「こと」는 현장과 관계없는 하나의 내용 및 사태로 받아들인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野田(1995)는 ‘동일 현장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현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工藤(1985)는 주절의 동사의 성질에 주목하여 「こと」와 「の」를 분류하고 있는데, 「こと」 전용으로는 사고동사, 전달동사, 의지동사, 표시동사가 있

고, 「の」 전용으로는 감각동사, 동작성동사가 있다. 그리고 「こと·の」 둘 다 사용하는 동사로 인지동사, 태도동사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지동사에 대해 추상적인 경우는 「こと」를, 감각적으로 해석되는 구체적인 경우에는 「の」를 사용한다고 지적하였다.

工藤(1985)는 인지동사의 경우 「こと」와 「の」에 대해 대상이 추상적인 것은 「こと」를, 이와 반대로 감각적으로 파악되는 구체적인 것은 「の」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6) 貧乏人は裁判にも絶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よくわかりましたわ。

(7) 歩いて入りながら画家は梅の匂うのを感じた。

工藤(1985:49)

(6)절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험·일’과 같은 추상적인 것에는 「こと」, (7)매실 냄새가 나는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감각에는 「の」가 사용된다고 설명하였다.

조영호·남가영(2009)는 「こと·もの·の」에 대해 고찰하고 한국어와 비교 대조하였는데, 「こと·の」가 둘 다 사용하는 것에 대해 「こと」는 일반적·추상적·객관적으로 기술되고 「の」는 「こと」보다 묘사적·구체적·체험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8) 太郎は赤ん坊が男の子である{こと(○)/の(○)}を期待した。(形名19)

조영호·남가영(2009:30)

하지만 (8)에서 아이가 남자아이라는 것을 일반적인 것, 추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적이라는 것의 의미범주가 명확하지 않고 반대 개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선행연구에서 「こと」는 현장성에 제약받지 않는 내용, 추상적인 내용에 사용하기 쉽고 「の」는 현장성에 제약받는 구체적인 내용에 사용하기 쉬운 것으로 정리된다.

일본어 모어화자가 실제로 「こと」와 「の」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한 연구로는 金(2003), 崔(2018) 등이 있다. 金(2003)은 문체의 관점에서 「こと」와 「の」의 사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중체에는 「こと」를, 보통체에는

「の」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こと」는 정중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보통체의 「好きだ/嫌いだ」에서도 「こと」를 25명, 「の」를 31명이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면 정중체가 아닌 경우에도 「こと」의 사용이 상당하다고 해석된다. 이런 점에서 「こと·の」의 사용에 있어서 문체만이 유효한 요인인가에 대해서 검토 필요성이 있고, 형용사라는 품사 또는 그 외의 요인이 작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崔(2018)는 金(2003)의 ‘문체’의 관점 이외에 「こと」와 「の」의 사용에 관여하는 ‘현장성¹⁾’을 관점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こと·の」가 둘 다 사용하는 것만 대상으로 일본어 모어화자가 어느 조건에서 「こと」와 「の」를 사용하기 쉬운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こと·の」의 사용 경향을 조사한 결과, 문체와 현장성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문체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일본어 모어화자에게 있어서는 ‘현장성’의 요인이 더 유효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こと」는 현장성(+)보다 현장성(-)에 사용되지만, 「の」는 현장성(-)보다 현장성(+)에 사용된다.

또한 「こと」는 보통체보다 정중체에, 「の」는 정중체보다 보통체에 사용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崔(2018)에서는 「こと·の」가 둘 다 사용하는 것만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그 외의 「こと」전용과 「の」전용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문말표현 「ことだ」에 대한 연구로는 寺村(1984), 備前(1989)가 있으며, 「のだ」에 대한 연구로는 田野村(1990), 野田(1997) 등이 있다.

「ことだ」용법으로는 寺村(1984)는 「충고, 권고, 감탄」을 들고 있고, 備前(1989)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 명령금지, 감탄·감동, 전문, 이유·근거제시, 환언·요약, 추량·추정, 여성적 종조사」를 설명하고 있다.

野田(1997)은 「のだ」를 선행문맥과의 관계성의 여부, 상대방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のだ」는 대표적으로는 ‘설명’의 용법을 갖고 있고, 이외에도 「구체화, 교시, 고백, 강조, 감탄」 등 다양한 용법으로도 사용된다고 정리된다.

1) 현장성에 대해서 ‘동일 현장성’의 문제점을 지적한 野田(1995)를 지지한다. 하지만 崔(2018)에서의 현장성은 그 장소에 한정된 구체적 동작의 성질을 가리킨다. 그 장소에 한정되어 제약을 받으면 현장성(+), 그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행위 및 사태가 아닌 경우는 현장성(-)로 분류한다.

2.2. 일본어 학습자의 「こと(だ) ·의(だ)」의 사용에 대한 연구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こと」와 「の」에 대한 연구로는 金(2002), 최진회(2019) 등이 있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金(2002)는 작문을 분석하여 「こと·の」가 들어가는 모든 형식의 사용 경향과 오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일본어 학습력에 관계없이 보문표식 「こと·の」와 문말표현의 「ことだ」, 「のだ」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사용횟수만 조사하였고, 정답률과 오용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오용에 대해서는 こと를 사용해야 할 곳에 の(1예)를, の를 사용해야 할 곳에 こと(3예)를 사용하는 오용만을 제시하였다.

(9) わたしは校服を着ている学生たちがまちでたばこを吸うことを見たことがあります。

(こと→の)

(10) だから私の意見は人々が多い公用場所では煙草をすうのを確実に禁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

(の→こと)

金(2002:125)

문말표현에 있어서도 「のだ」를 사용해야 할 곳에 「ことだ」 「ものだ」를 선택하는 오용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金(2002)는 오용의 패턴을 파악하기에는 양적 데이터가 부족하고 오용의 원인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진회(2019)는 「こと·の」가 둘 다 사용 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사용 경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는 보통체보다 정중체에는 「こと」를, 현장에 제한 받지 않는 현장성(-)에는 「こと」를 사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こと·の」가 둘 다 사용 가능한 것의 경우에는 일본어 모어화자는 「こと」(36.2%)보다 「の」(63.7%)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는 「の」(43.8%)보다 「こと」(56.2%)를 더 사용하고 있어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레벨별로 살펴보면 상급 레벨은 일본어 모어화자와 유의차가 없었지만, 초·중급 레벨은 일본어 모어화자와 비교해 보통체에 「の」를, 현장성(+)에도 「の」를 적극 사용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11) 寝る直前、今こそ、本をよむ (の>こと) が好きだ。 보통체·현장성(+)

(12) 父は今までの苦労が実った(こと>の)を喜びました。 정중체·현장성(-)

최진희(2019:116)

그리고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말표현 「ことだ」, 「のだ」의 습득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大場(1995), 江後(1995)는 「のだ」의 오용패턴 및 과잉 사용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のだ」의 부적절한 사용 및 과잉사용과 사용해야 할 곳에 사용하지 않는 비용(非用)에 대한 조사에 그치고 있다.

坪根(1997)는 「ものだ·ことだ·のだ」의 이해난이도 조사를 하여 보고하였다. 坪根(1997)연구에서 「ものだ」가 가장 이해난이도가 높고, 「のだ」가 가장 이해난이도가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서 「ものだ」가 습득하기 어렵고 「のだ」가 습득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のだ」용법 중 「설명, のですが」가 가장 이해하기 쉽고 습득하기 쉽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ものだ·ことだ·のだ」 전체에서 가장 이해난이도가 높았던 것은 「ことだ」의 용법²⁾ 중, 이유·근거 제시를 나타내는 「ことだ」로 나타났다.

(13) 이유·근거

彼ももう嘘はつかないと言っていることだ。今回は許してやろう。

坪根(1997:138)

(13) 「ことだ」의 용법 중 이유를 나타내는 것에 「ことだ」가 아니라, 「のだ」를 사용해 버리는 오용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오용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こと·の」가 둘 다 사용 가능한 것을 제외한 이외의 「こと」전용, 「の」전용, 「の<「こと」, 「こと」<「の」에서 「の」보다 「こと」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지 조사한다. 이러한 사용 경향이 오용의 원인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の」보다 「こと」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문말표현 「ことだ·のだ」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한국인 일본어 학습

2) 坪根(1997)에서 「ことだ」의 용법으로는 「충고, 환언·요약, 전문, 감탄·감동, 이유·근거」에 대해 조사하였다. 상급 레벨에서도 「ことだ」의 용법 중 이유·근거를 나타내는 용법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자가 「ことだ」에 「のだ」를 사용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3. 조사의 개요

이번 조사는 BCU일본어과 1~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2학년은 2019년 1학기 초, 1학년은 2학기 초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레벨 테스트는 SPOT A.ver³⁾(65점)을 실시한 78명으로 초·중급 레벨에 해당한다. 45.5점 이상을 중급레벨, 45.5이하를 초급레벨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급레벨⁴⁾은 42명(1학년 19명, 2학년23명), 초급레벨36명(1학년16명, 2학년20명)이었다.

조사 방법은 「こと」와 「の」 둘 중 선택하는 테스트와 「ことだ」「のだ」의 한일번역 테스트를 이용하였다. 조사는 총 20문제이다. 선택 테스트는 14문제로 「こと」 전용(4문제), 「の」 전용(4문제), 「の」 < 「こと」 (3문제), 「こと」 < 「の」 (3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1> 선택지 테스트의 문제 구성

「こと」 전용	「の」 전용	「の<こと」	「こと<の」
명사1は~ことだ ことができる ことにする ことがある	강조구문 のを見る のが見える 설명 의 のだ	「の<こと」が大切だ 「の<こと」が必要だ 「の<こと」を伝える	「こと<の」をとめる 「こと<の」を待った 「こと<の」を手伝った

이 가운데 「の」 < 「こと」 과 「こと」 < 「の」 에 대해서는 일본어 모어화자(2명)에게 판단하도록 하여 일치한 것을 선택하였다.

이번 조사의 「こと」와 「の」는 市川(2005)에 소개된 예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이번 선택 테스트에서 사용된 「こと」 전용과 「の」 전용은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가 이미 학습을 마친 항목들이고, 문제에 사용된 어휘도 이미 학습한 내용에 해당한다. 한편 「の」 < 「こと」, 「こと」 < 「の」 에 대해서는 교수자

3) SPOT(Simple Performance Oriented Test)A.ver(65점 만점)은 쓰쿠바대학 小林典子 선생이 개발하여 제공한 레벨 테스트이다. 자연스러운 발화속도로 나오는 문을 들으면서 문제의 괄호 안에 히라가나 1글자를 듣고 적는 테스트이다.

4) 중급은 중급레벨 이상으로 학습자 중에는 JLPT2급 및 1급을 소지한 학습자도 포함되어 있다.

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동사나 형용사를 제시하여 지도한 적은 없다.

한일번역 테스트는 문말표현 「ことだ」「のだ」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는 테스트로 6문제[「ことだ」(2문제), 「の(だ)」(2문제), 더미(2문제)⁵⁾]이다. 한일번역 테스트에서는 ‘것이다’에 해당하는 일본어문의 괄호 안에 표현을 기입하는 방식이다⁶⁾. 조사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다음 괄호 안에 「こと/の」 중에서 골라 넣으시오.

「こと」 전용

私の趣味は本を読む () です。

「の」 전용

さつき田中さんがパン屋に入る () を見ました。

「の」 < 「こと」 를 선호

人間は勉強する()が必要だ。

「こと」 < 「の」 를 선호

彼女が帰る () をとめる。

2. 다음 한국어를 일본어로 바꿔 주세요.

희망이란 삶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希望きぼうとは、生きることに意味があると信じる()です。

그건 방언이에요. 장소에 따라 단어가 다른 것이에요(다르거든요).

それは方言ほうげんですよ。場所によって言葉ことばが違ちがう () です。

4. 결과와 고찰

4.1. 「こと·の」의 선택 테스트 결과

데이터의 집계방식은 「こと」 전용에 「こと」를 선택하면 1점, 「の」 전용에 「の」를 선택하면 1점을 부여하고, 「の」 < 「こと」에 「こと」를 선택하면 1점,

5) 더미문제는 「だろう/ものだ」의 문제이다.

6) 용례는 김난도 『아프니깐 청춘이다』의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에서 차용하였다. 초·중급 레벨에게 한일번역테스트의 용례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것이다’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번역하도록 하였다.

「こと」 < 「の」에 「の」를 선택하면 1점을 부여하였다.

초·중급 레벨은 「こと」 전용의 정답률은 88.1%, 「の」 전용은 70.8%, 「の」 < 「こと」는 63.7%, 「こと」 < 「の」는 45.7%으로 나타났다. 崔(2018)에서 「こと·の」가 둘 다 사용 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이번 조사에서도 초·중급 레벨은 전체적으로 「こと」의 사용이 「の」에 비해 많았다. 「こと」 전용도 「の」 전용에 비해 정답률이 높았고 「の」 < 「こと」 쪽이 「こと」 < 「の」보다 정답률이 높았다.

다시 말해서 초·중급 레벨은 「こ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の」 전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이해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こと」보다 「の」를 사용해야 할 곳에 「こと」를 사용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2〉 초·중급 레벨의 「こと」와 「の」의 사용현황

용법 레벨	「こと」 전용	「の」 전용	「の」<「こと」	「こと」<「の」
중급	158점(98%)	135점(80.4%)	86점(68.3%)	73점(57.9%)
초급	117점(81.3%)	86점(59.7%)	63점(58.3%)	34점(31.5%)
합계	275점(88.1%)	221점(70.8%)	149점(63.7%)	107점(45.7%)

레벨별로 분석해 보면 초급레벨보다 중급레벨 쪽이 모든 용법에서 「こと」 전용, 「の」 전용, 「の」 < 「こと」, 「こと」 < 「の」에서 정답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초급레벨보다 중급레벨 쪽이 「こと」와 「の」의 사용에 대한 습득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된다. 초급레벨과 중급레벨 사이에 「こと」 전용에서 차이가 가장 적고, 「こと」 < 「の」에서 차이가 가장 컸다.

그리고 각 용법별 순위는 초급레벨과 중급레벨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중급레벨은 「こと」 전용(98%), 「の」 전용(80.4%), 「の」 < 「こと」(68.3%), 「こと」 < 「の」(5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급레벨도 동일하게 「こと」 전용(81.3%), 「の」 전용(59.7%), 「の」 < 「こと」(58.3%), 「こと」 < 「の」(3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급레벨의 경우 「こと」 < 「の」에 대해 「の」를 사용해야 할 곳에 「こと」를 사용해 버리는 오용이 많았다.

「こと」 사용에 관한 데이터를 레벨별, 문제별로 정리한 결과를 〈표3〉에 정

리하였다. <표3>에 의하면 초·중급 레벨은 「こと」 전용에서는 「の」 < 「こと」에 비해 「こと」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の」 < 「こと」에는 「こと」를 더 사용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경우 레벨이 높아질수록 「こと」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표3> 초·중급레벨의 「こと」의 사용 현황

「こと」 레벨	「こと」 전용(275점)				「の」 < 「こと」 (149점)		
	1번	5번	11번	14번	4번	8번	9번
중급	42점	36점	38점	42점	24점	29점	33점
초급	35점	27점	23점	32점	17점	21점	25점
합계	77점	63점	61점	74점	41점	50점	58점

초·중급 레벨에서 「こと」의 정답률이 가장 높은 예는 다음과 같다.

(13) 1번 私の趣味は本を読む (こと) です。

(14) 14번 私は日本へ行った (こと) があります。

(13) 「명사1は~명사2だ/です」 문으로 명사2에 「こと」만 사용하는 경우이다. 중급레벨은 42점(100%), 초급레벨은 35점(97.2%)로 대부분의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こと」 전용에 대해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ことがある」도 중급레벨은 42점(100%), 초급레벨도 32점(88.9%)으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습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こと」 전용의 관용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초급레벨에서는 「こと」의 사용이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11번 「ことにする」이 있다. 중급레벨은 38점(90.4%)으로 정답률이 높지만, 초급레벨은 23점(63.8%)에 불과하였다.

(15) 11번 ではこれで授業を終わる (こと) にします。

「の」 < 「こと」에서는 초·중급 레벨이 동일하게 「こと」의 사용이 낮은 것(4번)과 상대적으로 「こと」의 사용이 높은 것(9번)이 있다.

(16) 4번 人にやさしく、人のことを先に考える (こと) は大切なことだ。

(17) 9번 お帰りになりましたら、林から電話があった (こと) をお伝えください。

(16)은 뒤에 형용사 「大切だ」가 오는 경우로 중급레벨은 24점(53.3%), 초급레벨은 17점(47.2%)로 「の」 < 「こと」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사용감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17)은 뒤에 동사 「伝える」가 오는 경우로 중급레벨은 33점(73.3%), 초급레벨은 25점(69.4%)로 초급레벨도 70%가까이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お伝えください」가 관용적인 인사표현처럼 사용되고 있어 접할 기회가 많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の」 < 「こと」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大切だ」보다 「伝える」쪽이 「こと」의 사용이 많았을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の」의 사용에 관한 데이터를 레벨별, 문제별로 <표4>에 정리하였다.

<표4> 초·중급 레벨의 「の」의 사용 현황

레벨 \ 「の」	「の」 전용(221점)				「こと」 < 「の」 (107점)		
	2번	3번	12번	13번	6번	7번	10번
중급	26점	39점	34점	36점	26점	24점	23점
초급	15점	32점	21점	18점	10점	14점	10점
합계	41점	71점	55점	54점	36점	38점	33점

「の」 전용에서는 3번 「강조구문」에서 중급레벨은 39점(86.7%), 초급레벨은 32점(88.9%)로 「の」가 사용되었다. 한편 2번 「のを見る」에는 중급레벨은 26점(57.8%), 초급레벨은 15점(41.7%)로 「の」의 사용이 적었다. 반면 초급레벨에서는 오히려 「こと」를 더 사용하고 있었다.

(18) 3번 きのう来なかった (の) は山田さんだ。

(19) 2번 さっき田中さんがパン屋に入る (の) を見ました。

초·중급 레벨에서 「のを見る」와 같은 지각동사의 경우 구체적으로 눈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の」를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こと」 < 「の」에서 6번의 경우 중급레벨은 26점(57.8%), 초급레벨은 10점(27.8%)로 「の」의 사용이 가장 적고 오히려 「こと」를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7번, 10번도 마찬가지로 다른 용법보다 「の」의 사용이 적고 「こと」를 70% 정도 사용하고 있었다.

- (20) 6번 彼女が帰る (の) をとめる。
 (21) 7번 彼女が来る (の) を1時間も待った。
 (22) 10번 友達が部屋を探す (の) を手伝った。

초·중급레벨에서는 어떤 이유로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현장에 제약을 받는 현장성(+)의 경우에도 「こと」를 사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추후 연구할 필요가 있다. 崔(2018)에서는 초급레벨은 정중함을 나타내기 위해 「こと」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とめる」, 「待った」, 「手伝った」 모두 보통체였기 때문에 정중함을 나타내기 위해 「こと」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金(2002)는 일본어 학습력에 관계없이 작문에서는 보문표식 「こと·の」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の」를 사용해야 할 곳에 「こと」를 사용해 버리는 오용을 소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도 「の」를 사용해야 할 곳에 「こと」를 사용해 버리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초·중급 레벨에서는 「の」보다 「こと」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こと」보다 「の」의 사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崔(2018)에서 일본어 모어화자는 현장성에 제약을 받는 경우에 「の」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초·중급 레벨의 경우 현장성에 제약을 받는 구체적인 행위 및 상황에는 「の」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지각동사 「見る/見える/聞く/聞こえる」에는 「の」를, 「とめる/待つ/手伝う」에도 「こと」보다 「の」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4.2. 「ことだ·のだ」의 한일번역테스트 결과

한일번역 테스트에는 중급레벨은 42명, 초급레벨은 36명이 참여하였다. ‘것이다’ → 「ことだ」의 정답률과 ‘것이다’ → 「のだ」의 정답률을 비교하면 「のだ」(54.9%)의 정답률보다 「ことだ」(62.8%)의 정답률이 높았다. 초급레벨의 경우 「のだ」(52.8%)와 「ことだ」(54.2%)의 정답률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중급레벨의 경우 「のだ」(57.1%)의 정답률보다 「ことだ」(71.4%)의 정답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ことだ」는 초급레벨에 비해 중급레벨 쪽이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한일번역 테스트의 결과 중 ‘것이다’ → 「ことだ」번역의 정답률은 <표

5) 에 정리하였다.

<표5> ‘것이다’ → 「ことだ」 번역 테스트

문항 레벨	‘것이다’ → 「ことだ」	
	2번 문제	5번 문제
중급	ことだ(36명/85.7%) のだ(5명/11.9%) ものだ(1명/2.4%)	ことだ(24명/57.1%) のだ(17명/40.5%) 무응답(1명/2.4%)
초급	ことだ(20명/55.6%) のだ(10명/27.8%) ものだ(5명/13.9%) だろう(1명/2.8%)	ことだ(19명/52.8%) のだ(13명/36.1%) ものだ(1명/2.8%) ようだ(1명/2.8%) だろう (1명/2.8%) 무응답(1명/2.8%)

‘것이다’ → 「ことだ」 번역의 정답률을 살펴보면 중급레벨은 60명(71.4%), 초급레벨은 39명(54.1%)이었다. 한일번역 테스트에서도 「のだ」보다 「ことだ」 쪽이 정답률이 높았다. (23)은 ‘것이다’ → 「ことだ」 번역 테스트 중 정답률이 높은 예이다.

(23) 2번 희망이란 삶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希望きぼうとは、生きることに意味があると信じる()です。

중급레벨은 「こと다(36명)>のだ(5명)>ものだ(1명)」이 사용되었다. 초급레벨은 「こと다(20명)>のだ(10명)>ものだ(5명)>だろう(1명)」이 사용되었다. 초급레벨보다 중급레벨 쪽이 「こと다」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것이다’ → 「こと다」 번역 테스트 중 「こと다」와 「のだ」를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어 정답률이 낮은 예이다.

(24) 5번 대학에 진학해서 처음에 힘든 점은 ‘목표가 많아져 버린’ 것이다.

大学しんがくに進学して最初さいしょに大変たいへんだった点は「目標もくひょうが多くなってしまった」()だ。

중급레벨의 경우 「こと다(24명)>のだ(17명)>無(1명)」이 사용되었다. 초급레

벨은 「ことだ(19명)>のだ(13명)>ものだ/ようだ/だろう(각 1명)>無(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市川(2005)가 지적한 통어적 제약에 의한 「명사1は~ことだ」 구문과 함께 「ことだ」의 이유·근거 제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23)은 단문, (24)은 복문이라는 점으로 보아 단문보다 복문 쪽에 「こと」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것이다’ → 「のだ」 번역의 정답률을 살펴보도록 한다. 중급레벨은 48명(57.1%), 초급레벨은 38(52.7%)였다. 중급레벨보다 초급레벨 쪽이 「のだ」의 사용에 있어서 다양한 표현들과 혼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 ‘것이다’ → 「のだ」 번역 테스트

문항 레벨	‘것이다’ → 「のだ」	
	4번	6번
중급	ことだ(22명/52.4%)	のだ(29명/69%)
	のだ(19명/45.2%)	ことだ(9명/21.4%)
	ものだ(1명/2.4%)	ものだ(4명/9.5%)
초급	のだ(15명/41.7%)	のだ(23명/63.9%)
	ことだ(12명/33.3%)	ことだ(5명/13.9%)
	ものだ(4명/11.1%)	ものだ(5명/13.9%)
	そうだ(1명/2.8%)	だろう(1명/2.8%)
	べきだ(1명/2.8%)	무응답(2명/5.6%)
	だろう(1명/2.8%)	
	무응답(2명/5.6%)	

‘것이다’ → 「のだ」 번역에 있어서도 「のだ」의 정답률이 높은 경우와 「こと다」와 「のだ」를 혼용한 경우가 있었다. ‘것이다’ → 「のだ」 번역 테스트 중 「のだ」를 많이 사용한 예이다.

(25) 6번 그건 방언이에요. 장소에 따라 단어가 다른 것이에요(다르거든요).

それは方言ほうげんですよ。場所ばしょによって言葉ことばが違ちがう () です。

중급레벨은 「のだ(29명)>こと다(9명)>もの다(4명)」으로 나타났고, 초급레벨은

「のだ(23명)>ことだ(5명)>ものだ(5명)>だろう(1명)>무응답(2명)」으로 더 다양한 표현이 나타났다.

(25) 「のだ」는 앞의 문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초급레벨과 중급레벨 양쪽 다 「のだ」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앞에 있는 서술어의 명사를 주어로 받아 ‘방언은~장소에 따라 말이 다른 것이예요’와 같이 연결하기 쉬워 「のだ」를 사용하기 쉽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것이다’ → 「のだ」번역에 있어서도 「ことだ」와 「のだ」를 혼동한 경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6) 4번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뇌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 1개월은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30일’에 겨우 습관이 바뀌는 것이다.

しゅうかん か のう こうぞう か
習慣を変えるためには脳の構造を変え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さいてい く かえ
最低1ヶ月は繰り返
ひつよう みっか ほうず
必要があるという。「三日坊主」ではなく、「30日坊主」にして、しゅうかん
ようやく習慣が変
わる () だ。

중급레벨은 「ことだ(22명)>のだ(19명)>ものだ(2.4%)」로 나타났고, 초급레벨은 「のだ(15명)>ことだ(12명)>ものだ(4명)>そうだ(1명)>べきだ(1명)>だろう(1명)>무응답(2명)」으로 나타났다.

(26)은 「のだ」의 기능 중 ‘설명’에 해당하며 선행 문 ‘최소 1개월은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와 관련하여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데 「のだ」가 사용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는 설명의 「のだ」를 사용해야 할 곳에 「ことだ」를 사용해 버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경우 「ことだ」의 이유·근거 제시 용법에 「のだ」를 사용하는 오용과 설명의 「のだ」에 「ことだ」를 사용해 버리는 오용이 나타났다. 추후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ことだ」의 이유·근거 제시 용법과 「のだ」의 설명 용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ことだ」와 「の

7) 崔(2006)은 「のだ」의 기능을 명사화의 기능, 문 연결의 기능, 태도 표명의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 연결의 기능을 가진 「のだ」는 앞에 오는 문과 관련된 사정이나 의미가 나타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だ」를 비교 대조하여 지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25)(26)을 비교해 보면 (25)명사문과 (26)동사문의 차이로 인해 복잡한 구조의 동사문 쪽과 관련시키는 경우 초·중급 레벨에서 「のだ」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사용경향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는 문말표현에서도 「の」보다 「こと」의 정답률이 높았고, 「の」「こと」둘 다 초급레벨보다 중급레벨 쪽이 정답률이 높았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경우 레벨이 높아질수록 「の」「こと」「のだ」「ことだ」를 습득해 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문말표현에서는 「ことだ」와 「のだ」를 가장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野田(2001)는 공기(共起)에 대한 문법항목의 난이도에 대해 4가지 가설⁸⁾을 제시하고 있다. 「のだ」와 「ことだ」는 내외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내외조건이란 문의 안에 있는 요소와의 공기관계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습득하기 쉽고 문맥이나 상황과 같은 문 이외의 어느 정보로 정해지는 것은 습득하기 어렵다는 가설이다. 「ことだ」보다 「のだ」쪽이 문과 문의 관계로 인해 정해지는 문말표현으로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습득하기 어려운 표현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5. 나가기

본 연구에서는 「こと」 전용, 「の」 전용, 「の」 < 「こと」, 「こと」 < 「の」, 문말표현 「ことだ·のだ」를 대상으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두 가지 테스트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こと」와 「の」의 정답률을 살펴보면 초급레벨보다 중급레벨 쪽이 모든 항목에서 정답률이 높았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레벨이 높아질수록 「こと」와 「の」의 습득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초급레벨과 중급레벨 양쪽 다 「こと」 전용, 「の」 전용, 「の」 < 「こと」, 「こと」 < 「の」의 순서대로 정답률이 높았다. 이 점으로 보아 「こと」 전용에 대해 습득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こと」 < 「の」의 정답률이 가장 낮은 것을 보면

8) 野田(2001)에서 제시한 공기에 관한 4가지 난이도 가설은 원근조건(遠近條件), 전후조건(前後條件), 내외조건(内外條件), 단복조건(單複條件)이다.

「の」를 사용해야 할 곳에 「こと」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점으로 「こと」보다 「の」의 습득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게 현장성에 제약을 받는 구체적인 행위 및 상황에는 「の」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の」전용에서 「の+見る」의 사용이 낮은 것으로 보아 「の」전용의 지각동사 「見る/見える/聞く/聞こえる」에는 「の」를 더욱 사용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ことだ」와 「のだ」의 정답률도 「のだ」보다 「ことだ」의 정답률이 높았다. 「ことだ」와 「のだ」 둘 다 초급레벨 보다 중급레벨 쪽이 정답률이 높은 점으로 보아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레벨이 높아질수록 「ことだ」와 「のだ」의 습득이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ことだ」의 이유·근거 제시 용법에 「のだ」를 사용하는 오용과 설명의 「のだ」에 「ことだ」를 사용해 버리는 오용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게 두 형식의 용법을 대비시켜 지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こと」보다 「の」의 습득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こと」보다 「の」쪽이 습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외조건의 가설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のだ」는 문과 문의 관계로 인해 사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ことだ」에 비해 습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조영호·남가영(2009) 「일본어 형식명사 「こと·もの·の」에 대한 고찰-일본어 형식명사 「こと·もの·の」에 대응하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23, pp.23-36.
(DOI: 10.16979/jmak..26.200911.23)
- 최진희(2019) 「일본어 학습자의 「こと·の」의 사용에 관한 고찰-일본어 모어화자와 비교하여-」 『인문학연구』 114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1-20.
- 市川保子(2005) 『初級日本語文法と教え方のポイント』、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pp.332-338.
- 江後千香子(1995) 「「～のだ/～のです」の用法とその意味-日本語学習者の誤用から-」 『国語学
研究と資料』 19号、国語学研究会と資料の会、 pp.16-24.
- 大場理恵子(1995) 「「のだ」「のか」の習得上の紺難点について」 『言語文化と日本語教育』 9
号、お茶の水女子大学日本言語文化研究会、pp.229-245.
- 金銀淑(2002) 「韓国人学習者における「こと·の」の使い分けの使用実態および誤用分析」 『日本文
化学報』 15輯、韓国日本文化学会、pp.115-128.
- 金銀淑(2003) 「文体による「こと·の」の選択制限に関する研究およびその活用」 『日語日文学研究』
47、韓国日語日文学会、pp.153-174.
- 工藤真由美(1985) 「人、コトの使い分けと動詞の種類」 『国文学解釈と鑑賞』 50-3、至文堂編、pp.45-52.

- 佐治圭三(1993) 「「の」の本質-「こと」「もの」との対比から-」 『日本語学』 12-11、明治書院、pp.4-14.
- 田野村忠温(1990) 『現代日本語の文法-「のだ」の意味と用法-』、和泉選書、pp.1-53.
- 崔真姫(2006) 「「のだ」と「것이다」の対照研究-文法化の度合いの違い-」 『日本文化学報』 29輯、韓国日本文化学会、pp.27-43.
- 崔真姫(2018) 「「こと・の」の使い分けに関する再考察-スタイルと現場性の観点から-」 『日本文化学報』 76輯、韓国日本文化学会、pp.387-403. (DOI: <http://DOI.org/10.21481/jbunka.76.201802.387>)
- 坪根由香里(1997) 「「ものだ」「ことだ」「のだ」の理解難易度調査」 『第二言語としての日本語の習得研究』 1号、第2言語習得研究会編、pp.137-156.
- 寺村秀夫(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第Ⅱ巻』、くろしお出版、pp.293-311.
- 野田春美(1995) 「ノ、コト-埋め込み節を作る代表的な形式-」 『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下)複文・連文編』、宮島達夫・仁田義雄編、くろしお出版、pp.419-428.
- 野田春美(1997) 『「の(だ)」の機能』、くろしお出版、pp.62-104.
- 野田尚志(2001) 「第6章文法項目の難易度-難しい文法項目は複雑な処理を要求される-」 『日本語学習者の文法習得』、大修館書店、pp.101-120.
- 備前徹(1989) 「「~ことだ」の名詞述語文に関する一考察」 『滋賀大学教育学部紀要人文科学・社会科学・教育科学』 39、滋賀大学教育学部、pp.1-12.

논문 투고 일자 : 2019. 12. 29.

논문 심사 일자 : 2020. 01. 28.

게재 확정 일자 : 2020. 01. 30.

<要旨>

「こと・の」의習得難易度
—初·中級레벨을對象に—

崔真姬

本稿は「こと」専用、「の」専用、「の」よりことを好むもの、「こと」より「の」を好むものを對象に初·中級學習者が「こと・の」をどのように使っているかを調査した。「こと・の」の正解率を見ると、「こと」専用>「の」専用>「の」より「こと」を好むもの>「こと」より「の」を好むものの順で正解率が高かった。「こと」専用を最も習得していると考えられ、「こと」より「の」を好むものの正解率が最も低かった点から「の」を使うべきところに「こと」を使う傾向が確認された。このように「こと」より「の」習得が困難であると予測される。初·中級學習者は現場性に制約される具体的な行為及び状況には「の」が必要であることを積極的に指導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

文末表現の「こと・の」の正解率も「の」に比べ「こと」の正解率が高かった。「こと・の」両方初級より中級のほうが正解率が高かったので、學習者のレベルが高くなるにつれて、「こと・の」の習得が向上されると考えられる。

本研究では「こと」より「の」習得が困難であると確認されたが、その理由として「内外条件」が考えられる。内外条件は文の中にある要素との共起だけで決まる対立は習得しやすく、文脈や状況といった文の外にある情報で決まる対立は習得しにくいという仮説である。つまり、「の」は文と文の関係づけにより使用が決まる文末表現として「こと」に比べ習得しにくいと考えられる。

The Acquisition of Koto/No
—Focus on beginning intermediate levels—

Choi, Jin-Hui

In this study, two test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ways that beginning and intermediate learners use Koto and No, when divided into four groups: Koto usage only, No usage only, prefer Koto over No, and prefer No over Koto. The results showed the highest correct answer rate to be, in the following order, Koto usage only, No usage only, prefer Koto over No, prefer No over Koto.

Therefore, most learners can accurately acquire use of Koto but have a tendency to use Koto when No is the proper use. This is explained by the greater difficulty of acquiring No than Koto. Learners should be instructed to use No in specific behaviors and situations that are limited by the locality.

In fact, the correct answer rate was high for Koto use at the end of sentence expression in comparison with the use of No. When the learners' level was high, the correct answer rate for these of Koto and No was also high, showing that when learner their level, their ability to acquire Koto and No also improved.

In this study, we confirmed that acquiring No is harder than Koto, which can be explained by a hypothesis related to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It is considered easier to obtain what is determined only by the relationship to elements in a sentence, while it is difficult to learn what is defined other than sentences such as context or situation. No is a form of sentence expression one decides to use based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entences, so it is harder to learn than Koto.